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비극성 연구

오기봉

2011년 2월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비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오 기 봉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비극성 연구

Nihilism and Tragedy in *A Farewell to Arms*

201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오 기 봉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비극성 연구

지도교수 김 재 풍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전공)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오 기 봉

오기봉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 기 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 정 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제 풍 인

201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II. 전쟁과 허무주의적 비극성	4
III. 비와 눈의 이중적 상징성	17
IV. 전쟁과 비극적인 사랑	33
V. 결론	50

참 고 문 헌

ABSTRACT

Nihilistic Tragedy in *A Farewell to Arms*

Oh Ki-bong

Faculty Advisor :

Prof. Kim Jae-poong, Ph.D.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uss both the "nihilism and tragedy" presented in *Farewell to Arms* of E. M. Hemingway in which he has described the dualistic Nihilism with World War I, the meanings of natural objects, and the end of Frederic Henry and Catherine Barkley's life and love in tragedy. This novel which was written based on his experience participating in World War I has the elements of an autobiography. In this work, Frederic Henry, the hero, refused duty as a soldier in the battle field and ran away from the army. He had a feeling of disillusionment and repulsion when faced with the death of his girl friend. Through this work, Hemingway held a firm position as author. Most of his literary works are tragic. The Risk of death he experienced himself in several wars, including World War I and II, were represented in his work. Most it dealing with tragic visions of violence and death. He described the suffering caused by the violence of wars and the destiny of humans who collapse in vain before nature and God based on his experience. His experience permeated into all his literary works including 『*A Farewell To Arms*』. Though no hope is found in the work, Hemingway was able to represent the desperate efforts of humans to face despair instead of being depressed or defeated in a life full of despair.

Ernest Miller Hemingway's 『*A Farewell To Arms*』 described a person named Frederic Henry, a hero, who was immersed in nihilism refusing the meaning of the

war and the existing value when he realized its absurdity although he would like to seek for a stimulating adventure of a war on the sidelines without any purpose or motive. This study examined the nihilistic duality of war represented in 『*A Farewell To Arms*』 for logical development to effectively deliver the central meaning of the novel. Based on the results, it aims to analyze what effect the war had on the hero who criticized the war through nihilism, and what the nature of our life is. Next, this study focused on dual symbolism of rain and snow represented in the novel. The rain implies tragic images used through the author's imagination. Therefore, the study compared rain as a tragic image to snow as an ideal image and analyzed in what way they are represented and what interaction they have.

Hemingway represented absurdity and violence of the war through his distinctive hard-boiled writing style in this novel. Therefore, focusing on the wars and tragic love, this study analyzed how thoughts of the hero progressed during the absurd war and what the author wanted to represent through true love between the hero and Catherine Barkley.

I. 서론

미국의 현대문학은 대개 1910년에 시작되어 1920~30년에 걸쳐 개화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그 개화기의 미국 문학의 모티브는 무엇보다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쟁의 후유증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젊은 이들의 생명이 잿더미로 산화된 후, 문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민감하게 수용하였다. 그 가운데 E. M. Hemingway(1899-1961)는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예리하게 포착하여 이를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라는 주제로 착안하여 이를 그의 대부분의 전쟁소설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으로 폐허가 되고 정신적으로 황폐화 되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심 속에서 절망, 좌절, 삶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잃어버린 세대, 절망의 세대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사회, 교육, 정치, 종교지도자들은 말할 나위 없이 특히 작가에게 요구된 당면과제는 절망의 늪에서 젊은 세대를 어떻게 구제하여 그들에게 내일의 희망과 꿈을 던져줘야 하는가가 당면한 과제이자 사명이었다. 헤밍웨이는 당대 어떤 다른 작가들보다 이점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전쟁이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은 잠꼬대에 불과하다고 세계만방에 선포하고 나서 적극적인 반전주의자의 파수꾼을 자임하고 나섰다. 다시 말해, 헤밍웨이는 종군기자로서의 전선에 뛰어든 사실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확고한 인간의 존재방식을 작품속에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행동주의 작가’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게 된다.

헤밍웨이의 초기 작품들은 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전후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경제공황의 폐해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인간이 겪는 이념의 상실, 현실로부터의 도피, 사회적 의무의 회피 등이 그의 작품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전쟁을 배경으로 다룬 소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는가』(*For whom the bell tolls*),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The Sun also Rises*)

again), 『무기여 잘 있거라』(A Farewell To Arms) 작품들은 모두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그 가운데 『무기여 잘 있거라』는 이 논문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그러듯이 강건체(hard-boiled style)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미사여구를 피하고 간결하고 사실적으로 전쟁의 참혹성, 사랑의 애뜻함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그만의 독창적인 문체와 상징수법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세대’라는 비극적 주제, 전쟁과 사랑이라는 살벌하면서도 다분히 서정적인 감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헤밍웨이의 강온함의 균형감각을 음미할 수 있을 것 같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스토리의 줄거리는 전쟁에 참여한 프리드릭 헨리(Frederic Henry)를 통해 전쟁의 참혹한 현실에서 인간이 받는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 황폐해진 인간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원천이 사랑이라는 암시를 던지는 듯하지만, 한줄기 희망마저도 케서린 바클리(Catherine Barkley)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끝나버리는 내용이다.

헤밍웨이의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이나 기후, 자연물 등 여러 가지 이미지가 그의 작품 여기저기서 자주 등장한다. 현실성을 중요시 하는 헤밍웨이는 장소와 기후에 관해 매우 관심이 많았음을 여러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특히 기후, 지리, 계절 명암 등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이미지는 비극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비는 대표적인 비극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어 작품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둡게 하여 비극적 이미지를 점차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다.

헤밍웨이 작품 가운데 『누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와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전쟁이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백해무익하고 오직 인간의 영원한 적일뿐, 전쟁이 존재하는 한 비극은 종식될 수 없다는 그의 반전사상이 가장 잘 부각된 작품이다.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무기력 내지 자포자기의 상태로 인생을 체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

존의 본능과 전우애, 남녀의 사랑의 힘은 결코 전쟁의 비극에 굴하지 않고 인간의 위대함이자 승리로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헤밍웨이의 어떤 작품보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그가 “허무주의 및 잃어버린 세대”라는 그의 반전사상과 비극성을 가장 심도있게 담아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소설을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들의 성격을 분석하여 그들이 헤밍웨이의 대리역을 통해 인간의 비정함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사회에 고발하고 허무주의와 비극성을 극복하여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어떤 삶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의 주제, 즉 핵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논리의 전개로 첫째는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나는 전쟁과 허무주의적 이중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잘못된 전쟁관으로 뚜렷한 목적이나 동기 없이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전쟁의 자극과 모험을 찾아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 실체를 알고 난 후에 전쟁의 의의와 기성 가치를 부정하고 허무에 빠져버리는 프리드릭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벌이는 전쟁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며 나아가 인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는 작품 속에 표현되고 있는 비와 눈의 이중적 상징성이다. ‘비’는 비극적 이미지를 고조시키면서 작품의 비극적 종결을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이 같은 비극적인 비의 이미지에 눈의 이미지를 대립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눈의 이미지는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작가의 의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셋째는 전쟁과 비극적인 사랑이다. 전쟁이 낳은 부조리와 폭력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프리드릭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부조리한 전쟁 속에서 외적인 파멸을 당하면서도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케서린과 진실한 사랑을 하지만 결국 케서린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 사랑을 작가가 어떻게 미화시키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전쟁과 허무주의적 이중성

헤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프레드릭 헨리라는 한 인간을 통해 전쟁을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체험이 그것을 수행한 개별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간이 죽음을 무릅쓰고 벌이는 전쟁을 비판하며 1920년대 잃어버린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환멸감을 반영하고 있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첫 장면은 이탈리아 전선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에게 닥쳐올 내일의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전쟁의 목적에 대해 무지한 채, 소모품과 같은 일개 병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한 젊은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되어 나아갈 전체적인 사건의 실마리를 분위기 있게 나타내고 있다.

강과 들을 사이에 두고 많은 산들이 그 모습을 자랑하며 누워 있는 마을의 어느 시골집에서, 우리는 그 해 여름을 보냈다. 바짝 마른 강변에는 자갈과 둥근 돌들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파랗게 맑은 물줄기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고 그 물살은 세찼다. 부대가 잇달아 집 옆을 지나 한길을 내려갔다.¹⁾

In the late summer of that year we lived in a house in a village that looked across the river and the plain to the mountains. there were pebbles and boulders, dry and white in the sun, and the water was clear and swiftly moving and blue in the channels. Troops went by the house and down the road.

1) 헤밍웨이, E. M. 『무기여 잘 있거라』 (*A Farewell to Arms*). 최윤영 역, 해원출판사, 2004. p. 7. 이후 본문에 대한 인용문은 페이지 수만 표기함.

전선의 모습을 주변의 자연요소와 결합하여 느린 행렬의 느낌과 무더위, 더럽고 끈적거리는 상황으로 지루한 전쟁의 상태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다. 첫 장면부터 전쟁을 철저히 무의미하게 보고 있으며 인명을 살상하는 무모하고 슬픈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가장 냉혹하고 부조리한 장면은 카포레토(Caporetto)에서의 퇴각 시에 이탈리아군의 헌병들이 군사재판을 열고 장교들을 부대 탈주라는 이유만으로 즉결 처형을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비극적 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여 헤밍웨이가 설정한 플롯 중에서 돋보이는 부분이며 또한 허무의 주제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이기도 하다.

“부대 이탈죄로 총살에 처함.”

그 장교가 말했다.

두 헌병이 중령을 강독으로 끌고 갔다. 모자도 안 쓴 이 노인은 양쪽에서 헌병의 감시를 받으면서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 그는 종이에 쓴 선고문을 읽을 때 울었다. 그의 총살이 집행될 때는 이미 다른 군인이 심문을 받고 있었다. (239~240)

“Abandoned his troops, ordered to be shot,” he said.

Two carabinieri took the lieutenant-colonel to the river bank. He walked in the rain, an old man with his hat off... He cried when they read the sentence from the pad of paper, and they were questioning another when they shot him. (310)

전쟁의 부조리함과 무모함은 대열에서 이탈한 병사들을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결처분하는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다. 헌병들이 퇴각하는 군

인들 중에 장교들을 끌어내 부대 이탈 혐의로 심문하고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처형한다. 헌병들은 마치 사살이 전문인 것처럼 비정하며 자신들이 조국을 구출하고 있다고 내세우는 그들의 맹목적인 애국심은 공허한 가식에 불과할 뿐이다. 전쟁의 신성함을 믿으며 영광스러운 희생을 각오하고 참전한 사람들도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 대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전쟁의 공허와 허무에 대한 환멸감은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나는 신성이니 영광이니 희생이니 하는 그런 공허한 표현에는 언제나 어리둥절했다. ... 희생이라는 것 역시 고깃덩어리를 매장하는 것 외에 별뽕죽한 것이 아니라면 시카고의 도살장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 ... 영광이니 명예니 용기니 신성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들은 촌락의 이름들, 도로 번호, 강 이름, 연대나 날짜의 숫자 같은 구체적인 이름 곁에 갖다 놓으면 오히려 유치해졌다. (195~196)

I was always embarrassed by the words sacred, glorious, and sacrifice in vain. ... the sacrifices were like the stockyards at Chicago if nothing was done with the meat except to bury it. ... Abstract words such as glory, honor, courage, or hallow were obscene beside the concrete names of villages, the numbers of roads, the names of rivers, the numbers of regiments and the date. (262~263)

프레드릭 헨리에게 전쟁은 감추어진 세상의 더러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빠져나와 깨달은 것은 전쟁이란 거짓과 역겨움만이 가득한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인간의 희생이 화려한 형

용사들로 수식되었을 뿐 실상은 도살장에 던져진 고깃덩이와 다를 게 없다는 허망함을 깨닫는다. 이처럼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동료를 서로 죽이고 아군에게 죽음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전쟁의 부조리성과 허무를 느끼게 하고 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무가치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점은 병으로 쓰러져 가는 병사에 대한 묘사에도 잘 나타나 있다.

겨울이 되자, 긴 장마가 시작되더니 비와 함께 콜레라가 번졌다. 결국 콜레라는 박멸되었지만 군대는 7천여 명이나 희생되고 말았다. (8)

At the start of the winter came the permanent rain and with the rain came the cholera. But it was checked and in the end only seven thousand died of it in the army. (37)

전쟁 속에서가 아닌 콜레라 전염병으로 7천여 명의 병사가 죽어간다. 이 첫 장의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 소설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표현되는 것은 신이 쳐 놓은 덫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암시한다. 콜레라가 제거되었다는 것은 희망을 던지는 듯 하나 결국엔 고작 7천여 명의 희생이 따랐다는 아이러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삶의 부조리한 면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비참함과 냉혹함은 작가 헤밍웨이의 비극적 삶과 그가 전쟁에 대해 갖는 반전사상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무기여 잘 있거라』의 참담한 분위기와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운명과 작품의 주제인 허무주의를 결정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전투와는 상관없이 후퇴 길에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비극도 나타난다. 구렁에 빠진 구급차를 꺼내는데 협조하지 않고 도망가는 중사 계급의 군인 두 명을 사살하기 위해 총을 쏘는 보넬로는 총을 다룰 줄도 모르고 있다. 전투에서 후퇴하는 군인이

총을 다룰 줄 모른다고 하면 그동안의 전투 상황 중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으며 제대로 훈련된 군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전쟁이라는 명분아래 청년들은 아무이유 없이 죽어가고 서로를 미워하며 적개심을 가진 것이다.

헤밍웨이는 전쟁을 철저하게 무의미하게 보고 있으며 무모하고 슬픈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선으로 진군하는 중에 도로에서 부상병을 만나게 되어 탈장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환자에게 묻자 프레드릭 헨리는 망설임 없이 썩어빠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빌어먹을 전쟁을?”

“지긋지긋하지.” (38)

“How you like this goddamn war?”

“Rotten.” (80)

프레드릭 헨리의 이러한 전쟁혐오는 탈장대를 일부러 빼내 버리며 자해하고 있는 그 환자를 통해 나타내고 있는 전쟁관과 함께 전쟁의 인명살상과 의미 없는 적개심에 진절머리를 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전쟁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며 전쟁에 대한 환멸을 토로한다. 그리고 전쟁이란 결코 한쪽이 승리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고지를 점령했어도 또 다른 고지가 나오기 마련이며 결국 전쟁이란 끝없는 것이기 마련이므로 어느 한 쪽이 전쟁을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상이라 단념해 버린다. 그리고 참호에서 박격포탄 피격으로 부상을 당한 후 훈장을 받게 되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축하하며 그 과정을 물어보자 그저 치즈를 먹다 다쳤을 뿐이라며 훈장에 아무런 애착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것도 무의미하며 아무 득이 없는 허무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전쟁이 무의미한데 어쩌다 다친 것에 대한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태도다.

위생병이 갖다 놓은 의자에 그가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자넨 훈장을 타게 될 걸세. 은 훈장밖에 안되겠지만 말이야.”

“뭘 했길래?”

...

“아니. 다들 치즈를 먹고 있을 때, 폭탄이 터져서 나만 날려 버렸을 뿐이야.”

“농담이 아냐. 부상을 입기 전후에 무슨 영웅적인 행위를 했을 것 아냐. 잘 생각해 봐.”

“아무 일도 없었어.”

...

“나르킨 누굴 날라, 꿈쩍도 못 하고 있었는데.” (70)

The orderly brought a chair and he sat down, “and good news. You will be decorated. They want to get you the medaglia d’argento but perhaps they can get only the bronze.”

“What for?”

...

“No,” I said. “I was blown up while we were eating cheese.”

“Be serious. You must have done something heroic either before or after. Remember carefully.”

“I did not.”

...

“I didn’t carry anybody. I couldn’t move.” (116~117)

마지막 장에서 프레드릭은 케서린의 제왕절개 수술 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 앉아 수술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난날을 회상한다. 그의 운명이 회상 중에 나오는 개미와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진한 허무함을 느낀다.

언젠가 야영을 할 때 통나무 하나를 모닥불 위에 얹었다. 통나무에는 개미가 잔뜩 붙어 있었다. 통나무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개미 떼는 우글 우글 기어나와 먼저 가운데의 불 쪽으로 갔다. 그러다가 반대로 되돌아와 나무 끝 쪽으로 갔다. ...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함석척의 물을 통나무에다 끼얹어 봤자 고작 개미를 삶아 죽이는 역할밖에 되지 못했을 것이다. (341~342)

Once in camp I put a log on top of the fire and it was full of ants. As it commenced to burn, the ants swarmed out and went first toward the centre where the fire was; then turned back and ran toward the end. ... But I did not do anything but throw a tin cup of water on the log, so that I would have the cup empty to put whiskey in before I added water to it. I think the cup of water on the burning log only steamed the ants. (431)

프레드릭이 개미에게 무관심하듯 신 또한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상호 호혜성이 없고 신을 향한 인간의 자세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이기심의 근원은 신의 영원한 이기심이며 인간은 그 점에서 정확히 신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게는 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정말 아브루치로 가고 싶었지만 끝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주었다. 우리는 역시 친구였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았다. 그는 언제나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가서야 겨우 깨달았다. (18)

He had not had it but he understood that I had really wanted to go to the Abruzzi but had not gone and we were still friends, with many tastes alike, but with the difference between us. He had always known what I did not know and what, when I learned it, I was always able to forget. But I did not know that then, although I learned it later. (52)

휴가에서 돌아온 프레드릭은 인생에 대한 그의 태도에 내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의 내면 독백은 공허함을 일으키며, 그 공허함에 대한 그의 고통스러운 자각이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을 갖게 한다. 휴가에서 돌아온 날 밤 신부를 만나 아브루치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신부와 감정적으로 동조하며 후회한다. 결국 삶에 대한 동경과 도덕적 혼란에 대한 자각과 혐오는 실제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앞으로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된다.

프레드릭이 전쟁의 실체에 대해 깨닫는 부분은 9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쟁이 나쁘다는 것은 그와 그의 부하들 모두 알고 있지만 파시니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만큼 나쁜지 그 깊이와 정도를 모른다는 것이다. 위생병과의 오가는 대화 속에서도 전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모한 전쟁인지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쟁은 왜 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물음이 다음의 대화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책도 읽습니다. 우리들은 농부가 아니에요. 기술공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고마워할 만큼 무지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 전쟁을 싫어하지요.”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우둔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계급이 있는 법이야. 그들은 알고도 해도 알 수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하고 있지.”

“게다가 그 전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거든.” (56)

“We think. We read. We are not peasants. We are mechanics. But even the peasants know better than to believe in a war. Everybody hates this war.”

“There is a class that controls a country that is stupid and does not realize anything and never can. That is why we have this war.”

“Also they make money out of it.” (101)

프레드릭은 부하들과의 대화, 전투에서 용감성의 부족 때문에 매 열 번째 병사가 처형되었다는 파시니의 이야기, 싸우지 않기 위해서 탈장대를 벗어버린 한 이탈리아 병사와의 만남, 식사 중에 박격포탄을 맞은 자신의 무릎 부상과 전쟁을 증오하던 파시니의 죽음, 그리고 가장 부조리한 카포레토 퇴각 시의 처형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쟁의 비정과 모순을 인식한다. 헨리의 전쟁에 대한 인식은 실제 헤밍웨이의 전쟁 체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더욱 더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쟁의 부조리함과 잔인함을 폭로하기 때문에 소설을 쓴 의도와 직결된다.

카포레토 퇴각 장면은 전쟁의 부조리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명장면 중의 하나로 아군과 적군이 구별을 하지 못한 채 무차별 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살상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레드릭 헨리를 비롯한 군인들은 전쟁의 부조리함과 허무에 몸서리치고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전쟁에 참가했던 주인공은 전쟁에 대해서 고상한 명분과는 상관없는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 날 밤, 후퇴하기 시작했다. 독일군과 오스트리아 군이 북방 전선을 돌파하고 치비달레와 우디네를 향해 계곡을 타고 전진중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후퇴는 비에 젖고 침울했지만 질서 정연했다. 밤중에 혼잡한 도로를 따라 서서히 나아가면서 빗속을 행군하는 부대와 대포, 마차를 끄는 군마와 노새, 트럭 등의 대열을 지나쳤다. 모두가 전진에서 이동하는 것들이었다. 전진할 때에 비해서 그다지 혼란은 없었다. (198)

The next night the retreat started. We heard that Germans and Austrians had broken through in the north and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valleys toward Cividale and Udine. The retreat was orderly, wet and sullen. In the night, going slowly along the crowded roads we passed troops marching under the rain, guns, horses pulling wagons, mules, motor trucks, all moving away from the front. There was no more disorder than in an advance. (266)

종군신부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며 심지어 상급 장교인 군의관 소령까지도 부상당해 후방으로 후송되었던 프레드릭 헨리에게 치열한 전투에 고생하느니 부상당해서 후송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전쟁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말한다. 군의관 자신도 전쟁에 지쳤다고 털어놓고 진저리치며 모든 병사들도 지친 전쟁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주인공 프레드릭 헨리와 가장 절친한 친구인 리날디도 온 여름과 가을동안 쉴틈없이 수술을 하면서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전쟁에 대해 고개를 내 젓는다.

“자네야말로 어떻게 된 건가?”

“난 이 전쟁이 지긋지긋해. 정말 미쳐 버릴 지경이라고.”

...

“여름내 가을내 수술만 했어. 밤낮 일만 했지, 모든 사람의 일을 혼자
도맡아 했지. 정말 힘든 일은 전부 내게만 떠맡겼으니. 여보게, 나도 유명
한 의사가 될 모양이야.” (175)

“What’s the matter with you?”

“This war is killing me,” Rinaldi said, “I am very depressed by it.”

...

“All summer and all fall I’ve operated. I work all the time. I do
everybody’s work. All the hard ones they leave to me. By God, baby,
I am becoming a lovely surgeon.” (241~242)

심신이 고달프다 못해 쓰러질 지경이 된 리날디는 아무 보람 없이 전쟁터에서 소모
품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위생병뿐만 아니라 이토록 지겨운 전쟁에 억지로 동원
된 병사들도 후퇴하는 동안 내내 전쟁을 저주하며 그 누구하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이 없었지만 쓸모없는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참호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 갑자기 당한 폭격으로 프레드릭 헨리는 다리에 부상
을 입게 되고 정신을 다시 차려 옆을 보니 또 한 번의 폭격으로 동료 파시니가 끔찍하
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몸을 끌고 비틀고 해서 겨우 다리를 빼고는 몸을 돌려 그를 만져
보았다. 파시니였다. 몸을 만지자 그는 비명을 올렸다. 명멸하는 포화 사
이로 나는 그의 다리를 보았다. 그의 두 다리는 모두 무릎 위까지 산산히
부서져 있었다. 한쪽 다리는 없어졌고, 또 한쪽 다리는 힘줄과 바지가랑

이의 일부로 간신히 달라붙어 있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것처럼 끊어진 다리가 꿈틀거리고 뒤틀리고는 했다. ... 그는 팔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끊어진 다리가 꿈틀거렸다. (61)

I pulled and twisted and got my legs loose finally and turned around and touched him. It was Passini and when I touched him he screamed. His legs were toward me and I saw in the dark and the light that they were both smashed above the knee. One leg was gone and the other was held by tendons and part of the trouser and the stump twitched and jerked as though it were not connected. ... Then he was quite biting his arm, the stump of his leg twitching. (106~107)

파시니가 부상을 당하는 이 장면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 헤밍웨이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전쟁의 잔인한 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주인공인 프레드릭 헨리도 이러한 경험이 자신에게 정신적인 큰 충격이었음 나타내는 부분이 있다.

잠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단 한번 식은땀을 흘리고 놀라 잠을 깼지만, 곧 다시 꿈을 꾸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잠이 들었다. ... 피곤했으므로 완전히 날이 밝은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96)

I watched for a while and then went to sleep. I slept heavily except once I woke sweating and scared and then went back to sleep trying to stay outside of my dream. ... I was tired and once it was really

light I went back to sleep again. (147)

프레드릭 헨리가 부상을 당하기 전 그의 운전병들과 함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파시니는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이야기 한다. 전쟁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아니며 그들은 파시니의 생각처럼 전쟁의 잔인함을 겪어가면서 전쟁을 일으킨 지배계층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장단에 맞추고 있을 뿐인 자신들이 한심하다는 허무감을 드러내고 있다. 애국심에 들떠 불의에 항거 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한 전쟁이지만 막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은 잔인한 전쟁에서 그들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지배계층에 대한 반감만 쌓여갈 뿐인 것이다.

전장의 병사들은 전쟁이 진행되는 정확한 상황도 알지 못한 채 무성한 소문만 나도는 전쟁터에서 어떠한 정치적, 도덕적 대의도 찾지 못한다. 그들은 다만 살아서 전쟁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²⁾

프레드릭 헨리와 피아니 두 사람은 퇴각하다 헌병으로부터 오인 받고 즉결 처형이라는 엄청난 현실에 부딪힌다. 헌병들은 자기들은 진전의 위험을 겪지 않고 안전지대에서 기다렸다가 퇴각해오는 장교들을 군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적군이 아닌 아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의 비합리성을 보여준다.

“소속 사단은?” 그는 대답했다.

“연대는?” 그는 대답했다.

“왜 연대에서 이탈했소?” 그는 대답했다.

“장교는 소속 부대와 행동을 같이 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오?”

...

2) 김유조, 『어네스트 헤밍웨이』,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p. 47

“우리가 승리의 기회를 놓친 것은 당신네 같은 사람의 반역 행위 때문
이오.”

“자네는 후퇴해 본 경험이 없나?”

중령이 물었다.

“이탈리아 군은 후퇴란 것은 있을 수 없소.” (239)

“Your brigade?” He told them.

“Regiment?” He told them.

“Why are you not with your regiment?” He told them.

“Do you not know that an officer should be with his troops?” He
did.

...

“It is because of treachery such as your that we have lost the fruits
of victory.”

“Have you ever been in a retreat?” the lieutenant-colonel asked.

“Italy should never retreat.” (309)

이처럼 터무니없는 심문을 한 후에 군인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 총살을 한다. 소속
과 연대가 인간을 판단하는, 단지 후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
에서 주인공은 가치 없이 죽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

Ⅲ. 비와 눈의 이중적 상징성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이미지가 비극적 형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을까? 물론 ‘비’다. ‘비’는 작가의 상

상력에 의해 사용되는 비극적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함축하는 분위기를 가지는 요소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적인 이미지에서 비를 이상적인 이미지인 눈과 비교하여 이 두 가지가 작품 구성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호 어떤 관련성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비’는 헤밍웨이 소설 속에서 가장 일관성 있게 사용되는 상징중의 하나로, 비에 관해서는 Malcolm Cowley을 비롯하여 Carlos Baker, Philip Young, Earl Rovit 등의 비평가들이 이구성동으로 불행과 재난의 전조로 보고 있다.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는 첫 부분에서부터 비가 내리는데, 이때의 비는 절망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후에 일어날 모든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비극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있다.

거기서도 그 산을 점령하기 위해 전투가 벌여졌으나 성공하지는 못했고, 가을이 되어 장마가 오자, 밤나무 잎이 모두 떨어져 가지가 앙상해지고 등지는 비에 젖어 거무죽죽하게 되었다. ... 한 길에서는 트럭이 흙탕물을 튀기며 달렸기 때문에 외투를 입은 병사들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젖었다. 총도 젖었다. 외투 속에는 혁대 앞에 가죽으로 된 탄입대가 두개 달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기다랗고 가는 6.5밀리 탄창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8)

There was fighting for that mountain too, but it was not successful, and in the fall when the rains came the leaves all fell from the chestnut trees and the branches were bare and the trunks black with rain. ... There were mists over the river and clouds on the mountain and the trucks splashed mud on the road and the troops were muddy and wet in there capes; their rifles were wet and under their capes

the two leather cartridge-boxes on the front of the belt, gray leather boxes heavy with the packs of clips of thin, long 6.5mm. (36~37)

겨울이 되자, 긴 장마가 시작되더니 비와 함께 콜레라가 번졌다. 결국 콜레라는 박멸되었지만 군대는 7천여 명이나 희생되고 말았다. (8)

At the start of the winter came the permanent rain and with the rain came the cholera. But it was checked and in the end only seven thousand died of it in the army. (37)

차가운 겨울에 내리는 비는 급기야 전염병이 들게 하였고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가는 비극을 몰고 온다.

제1장에서 비는 작품 전체의 어두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하나의 일관성 있는 단일한 체제로 묶어 가는 역할과 비극적인 일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비를 사용하고 있다. 주인공이 전선에서 포탄에 의한 부상을 당하여 후방에 있는 밀라노의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에 있는 케서린 바클리와의 재회하여 사랑 할 때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프레드릭 헨리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회복 기간 중 케서린 바클리와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이들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비는 내리기 시작한다. 이 때 내리는 비는 프레드릭 헨리가 전선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받고 케서린 바클리와의 이별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우리들은 발코니로 나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달이 뜰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거리는 온통 안개로 덮이고 달은 뜨지 않았다. 잠시 후에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느 새 안개는 비로 변해 밖에서는 이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

서서 비가 떨어치나 보려고 창가로 가보았지만, 비가 떨어치지 않아서 열린 채로 두었다. (133)

We were talking softly out on the balcony. The moon was supposed to rise but there was a mist over the town and it did not come up and in a little while it started to drizzle and we came in. Outside the mist turned to rain and in a little while it was raining hard and we heard it drumming on the roof. I got up and stood at the door to see if it was raining in but it wasn't, so I left the door open. (190)

여기에서 이슬비는 현재 프레드릭 헨리와 케서린 바클리의 행복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잠시 후 ‘drizzle’ 정도로 시작한 것이 지붕을 두드리는 ‘hard rain’으로 변하여 이들에게 닥칠 심각한 불행과 재난을 암시해주고 있다.

“몹시 오는군.”

“언제나 날 사랑해 주시겠죠?”

“그럼.”

...

“그럼 말하죠. 비가 무서운 건요, 가끔 빗속에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그리고 가끔 당신이 죽어 있는 것도 보여요.”

“그거 그럴듯하구먼.”

“아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난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

어요. 그런데 자신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

그녀는 울고 있었다. 내가 달려자 이내 울음을 그쳤다. 밖에는 아직도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133~135)

“It’s raining hard”

“And you’ll always love me, won’t you?”

“Yes”

...

“Why are you afraid of it?”

...

“All right. I’m afraid of the rain because sometimes I see me dead
in it.”

“No.”

“And sometimes I see you dead in it.”

“That’s more likely.”

“No, it’s not, darling. Because I can keep you safe. I know I can.
But nobody can help themselves.”

...

She was crying. I comforted her and she stopped crying. But
outside it kept on raining. (191~192)

케서린 바클리는 프레드릭 헨리와 함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끔 빗속에서 죽어있
는 자신이 보이고, 프레드릭 헨리 또한 빗속에서 죽어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항상
비를 두려워한다. 케서린 바클리는 비의 공포와 위험으로부터 연인인 프레드릭 헨리를

지킬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여기에서 비는 후에 케서린 바클리 “생리적인 덫(biological trap)”에 걸려 죽게 되는 두 사람의 숙명적 사랑의 종말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프레드릭 헨리는 비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내재적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케서린 바클리가 경험한 허무와 절망감을 실망하지 못하고 그녀가 느끼는 비에 대한 공포감을 단순히 난센스로 말하며 밀란(Milan) 병원에서 그녀가 보여준 사랑을 브리지 게임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녀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작별 하던 날 저녁, 호텔에서 식사 후 말 없이 밖의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래쪽 거리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릴 때 프레드릭 헨리가 시를 읊조리는 부분에 더 잘 나타나 있다.

“내 등 뒤에서 끊임없이 들리는 소리,
날개 돌친 세월의 수레가 서둘러 다가오는 소리.” (164)

“‘But at my back I always hear
Time’s winged chariot hurrying near.’” (226)

‘To His Coy Mistress’의 시구를 외우는 장면이다. 내용은 구애하는 남자를 거절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며 그 여자에게 남자는 세월의 덧없음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케서린 바클리도 이 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루지 못할 비극적인 사랑으로 비는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호텔에서 나와 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비가 내리고 마차에서 내려 역 대합실로 걸어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비는 쏟아지고 기차가 출발할 때 역시 비가 내리고 있다.

카포레토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후퇴 직전 산야에 내리는 비는 온 세상을 축축하고

들러붙는 진흙투성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떨어버릴래야 떨어버릴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의 그림자는 그야말로 “진흙”처럼 들러붙어 인간을 끈질기게 괴롭힐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비는 재앙을 경고해 준다.³⁾

이 비는 끊임없이 내려 인간의 무모하고 비생산적인 전장에 자욱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렇게 비는 계속 내리다가 눈으로 변해가고 또다시 녹아 질퍽거리는 가운데 전쟁은 악화되며 그저 낭비의 반복이며 무의미한 결과만을 가져다준다.

날이 밝아도 폭풍은 여전했으나 눈은 그쳤다. 눈은 젖은 땅에 내려앉아 곧 녹았다. 그것은 다시 비로 변해 있었다. 날이 밝은 직후에도 또 한 번 공격이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197)

When daylight came the storm was still blowing but the snow had stopped. It had melted as it fell on the wet ground and now it was raining again. There was another attack just after daylight but it was unsuccessful. (265)

그칠 줄 모르고 지겹게 내리는 비는 후퇴 당일 짐을 꾸리는 병사들을 싸늘한 비에 젖게 했을 뿐 아니라 다음날 역시 계속 내리는 비는 그해 봄에 승리를 거두었던 강변을 10월의 비로 음산하게 만든다.

다음날 밤, 후퇴하기 시작했다.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이 북방 전선을 돌파하고 치비달레와 우디네를 향해 계곡을 타고 진진중이라는 말이 들려왔다. 후퇴는 비에 젖고 침울했지만 질서정연했다.

...

3) Wirt William, *The Tragic Art of Ernest Hemingway* (Baton Rouge: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83), p. 81

비는 줄기차게 내렸다. 바인시차 방면의 부대들은 그 해 봄 큰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던 강을 건너, 시월의 비를 맞으면서 고원으로부터 이동해 왔다. (198)

The next night the retreat started. We heard that Germans and Austrians had broken through in the north and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valleys toward Cividale and Udine. The retreat was orderly, wet and sullen.

...

It rained steadily and the army of the Bainsizza moved down off the plateau in the October rain and across the river where the great victories had commenced in the spring of that year. (266~267)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의 진격으로 시작된 대 퇴각은 비에 젖어 음울한 가운데 퇴각 부대의 행렬은 무질서하기도 하다. 프레드릭 헨리와 병사들 모두는 죽음을 향해 여행 하듯 이동하고 있다. 10월의 비를 맞으면서 고르지아(Gorizia)로 퇴각하는데 비 내리는 어두운 거리에는 간선도로를 지나가는 부대와 대포의 행렬뿐이며 지루하고 힘겨운 퇴각은 진퇴를 거듭하며 진행하고 있다. 차량 대열은 밀려 꿈쩍도 않고, 비는 아직도 세차게 내린다. 이때, 프레드릭 헨리는 깜박 졸면서 꿈을 꾸다.

저것을 보라. 제기랄, 캐서린이 내 팔에 안겨 있고 내가 다시 침대에 누워있다면. 그리운 캐서린. 내 사랑 캐서린을 비처럼 내리게 하소서. 바람아, 다시 한 번 그녀를 나에게 데려다 주렴. 그렇지, 우리들은 비바람 속에 있다. 모두 비바람 속에 있다. 이슬비로는 바람을 잠재울 수 없으리라. (209)

Look at it. Christ, that my love were in my arms and I in my bed again. That my love Catherine. That my sweet love Catherine down might rain. Blow her again to me. Well, we were in it. Every one was caught in it and the small rain would not quite it. (278)

전쟁 속 퇴각의 긴박한 상황에서도 케서린 바클리의 평안을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했다. 하지만 이내 꿈이라는 것을 안다. 모두가 비바람 속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견하는 이미지인 것이다.

테크리아멘토(Tagliamento) 강을 건널 때 중령과 야전헌병이 이탈리아 말에 사투리가 섞였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중령에 대해 장교들은 의논을 하고 부대 이탈죄로 총살에 처한다고 종이에 썼다. 두 헌병이 중령을 강둑으로 끌고가 총살을 한다.

프레드릭 헨리는 이탈리아 군복을 입은 독일군이었기 때문에 조국을 구하려는 일념에 불타고 있는 청년 장교들이 결정한 총살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소속 부대를 이탈한 소령 이상의 장교를 처형하고 있는 도중 새로 잡혀온 장교를 심문하는 틈을 타 강으로 뛰어 들어 베네치안(Venetian) 평야를 횡단하여 열차를 타고 새벽에 밀란(Milan)에 도착하여 포터로부터 케서린 바클리의 소식을 물어봤으나 그녀는 스트레사(Stresa)로 떠난 뒤였다. 케서린 바클리를 찾아 스트레사(Stresa) 역에 도착했을 때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날 밤 폭풍우가 일었고, 유리창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깬다. 비바람이 창을 열고 들이쳤다. 누가 문을 두드렸다. 나는 케서린이 잠을 깰까봐 가만히 가서 문을 열었다. 바텐더가 거기 서 있었다. 비옷을 입고 젖은 모자를 들고 있었다. (276)

That night there was a storm and I woke to hear the rain lashing the window-panes. It was coming in the open window. Some one had knocked on the door. I went to the door very softly, not to disturb Catherine, and opened it. The barman stood there. He wore his overcoat and carried his wet hat. (357)

밤에 폭우가 내렸고 다음날 프레드릭 헨리를 헌병이 체포하러 온다는 말을 바텐더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 때도 빗물은 비극을 재촉하며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비는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비극적 상황을 나타낼 때 많이 내린다. 다음은 호텔 지배인 에밀리오(Emilio)가 빗물을 뚝뚝 흘리며 방안으로 들어와 프레드릭 헨리에게 탈출하도록 긴급한 이야기를 하는 대화내용이다.

“무슨 일이야?”

“꽤 중대한 일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은 어두웠다. 마룻바닥에는 창에서 들이친 빗물이 고여 있었다.

“웬일이야, 에밀리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중위님께 관한 일입니다.” (276)

“What’s the matter?”

“It’s a very serious matter.”

I looked around. The room was dark. I saw the matter in the floor from the window. “Come in,” I said. I took him by the arm into the bathroom; locked the door and put on the light. I sat down on the edge of the bathtub.

“What’s the matter, Emilio? Are you in trouble?”

“No. You are, Tenente.” (357)

무의미하고 광기어린 전쟁에 환멸을 느낀 프레드릭 헨리 중위는 이제 자기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듯하다. 따라서 그는 그에게 방문한 호텔 지배인에게 오히려 무슨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듯이 질문을 던진다.

눈이 녹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죽음과 연결된다.

3월로 들어서자 비로서 겨울이 끝난 것 같았다. 밤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내 비가 내렸고 눈이 비와 섞여 진창으로 변해 산중턱의 경치는 흉했다. (317)

.....

비는 사흘 동안 내렸다. 정거장 아래 산허리의 눈도 완전히 녹아 버렸다. 길은 눈 녹은 흙탕물의 개울로 변해 버렸다. 너무 질고 진창이라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비가 내린 지 사흘 되는 날 아침에, 우리는 시내로 내려가기로 했다. (318)

In march came the first break in the winter. In the night it started raining. It rained on all morning and turned the snow to slush and made the mountain-side dismal. (406)

.....

It rained for three days. The snow was all gone now on the mountain-side below the station. The road was a torrent of muddy snow-water. It was too wet and slushy to to out. On the morning of

the third day of rain we decided to go down into town. (407)

이에 바텐더가 제공하는 보트로 비를 맞으며 탈출을 시도하고 결국 비, 바람과 싸우며 호수를 북상해 스위스로 향한 탈출의 장도에 오른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 봄이 오고 또다시 비가 내린다는 것은, 그 동안 전쟁의 대한 환멸과 불안, 고통을 잊고 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비극의 수레가 그들 앞에 도착했음을 알려주면서 케서린 바클리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로잔에 도착해서 중간쯤 되어 보이는 호텔에 짐을 풀었다. 마차를 달려 호텔 현관에 들어설 때까지도 비가 내렸다. (319)

We came into Lausanne and went into a medium-sized hotel to stay. It was still raining as we drove through the streets and into the carriage entrance of the hotel. (408)

이 때 내리는 비 역시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볼 수가 있다.

그녀는 급히 들어갔다. 나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들어가는 것이 무서웠다. 창밖을 대다보았다. 어두웠지만 창으로 비치는 불빛으로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337~338)

She hurried in. I walked up and down the hall. I was afraid to go in. I looked out the window. It was dark but in the light from the

window I could see it was raining. (427)

이 비가 바로 죽음을 예고하는 비극적 재앙의 비였던 것이다.

오랜 산고 끝에 결국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케서린 바클리의 분만실 창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웠지만 창으로 비치는 불빛으로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337~338)

I looked out the window. It was dark but in the light from the window I could see it was raining. (427)

이 비는 케서린 바클리가 전부터 항상 두려움을 느껴왔던 비로 그 두려움은 죽음을 인식하고 있음에서 기인된 것이다.

오랜 산통과 고통 끝에 남자 아이를 출산 하지만,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탯줄에 감겨 죽고 만다. 프레드릭 헨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시야에는 어둠과 쏟아지는 비 밖에,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간호사의 보고서가 옆에 걸려 있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과 창밖으로 불빛 사이를 가르는 비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341)

I sat down the chair in front of a table where there were nurses' reports hung on clips at the side and looked out of the window. I could see nothing but the dark and the rain falling across the light

from the window. (430)

이 비에 의한 불운의 암시는 결국 신생아의 사산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된다.

어두운 빗속을 걸어 카페에 들어가 저녁과 맥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병원으로 돌아와 복도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산모가 과다 출혈로 매우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생각 할 수도 없었던 상황에서 프레드릭 헨리는 하나님께 케서린 바클리를 살려달라는 기도까지 드리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는 웃으며 오히려 위로하면서 시험에 빠진 것뿐이라고 한다. 결국 출혈을 막지 못하고 케서린 바클리는 숨을 거두게 된다. 그녀의 시신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작품의 전편을 통해 내렸던 비극적인 이미지인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고 전등을 켜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조상을 보고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밖으로 나와서 병원을 뒤로 두고 빗속을 걸어서 호텔로 돌아왔다.
(347)

But after I had got them out and shut the door and turned off the light it wasn't any good. It was like saying good-by to a statue.
After a while I went out and left the hospital and walked back to the hotel in the rain. (436)

이 때 내리는 비는 인간의 실존적 상황을 의미한다. 케서린 바클리가 꿈속에서 보았던 빗속에 누워있는 자신의 주검처럼, 이 비는 모든 인간이 붙들고 싸워야하는 존재의 조건인 것이다. 빗속에서 우산도 받지 않고 묵묵히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프레드릭 헨리의 모습은 작가가 허무 속에 만든 비극적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비가 지나는 모든 재난은 케서린 바클리의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작품의 처음부터 정해진 바의 완성일 뿐이며, 이러한 모든 것의 상실은 정신적인 면에서 프레드릭 헨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방어되지 못하고, 그것을 막아줄 어느 누구도 함께 하지 못한 채 비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이것은 몸은 살아 있어도 이미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헤밍웨이가 비를 싫어하기 때문에 비를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가장 대표되는 비극적 종말을 암시하는 중요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눈은 비극과 암울함 속에서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눈은 내릴 때의 고체성과 포근함으로 주인공들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제공할 수도 있고, 녹을 때의 액체 성과 허무함으로 비처럼 불행한 일을 예견하는 것처럼 눈은 그 양면성으로서 소설 속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눈의 형태에 따라서 ‘죽음’의 이미지도 되지만 ‘사랑’과 ‘건전함’,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장에서 눈이 사랑과 모든 불결함을 씻어주는 요소가 되는 그것이다.

구름은 무척이나 빨리 흘렀고 태양이 흐릿하게 빛을 잃어가면서 모든 것이 잿빛으로 되더니 하늘이 온통 캄캄해졌다. 구름이 산을 뛰어내려와 삼시에 둘레를 짠 듯하더니 눈으로 변해 버렸다. ... 누군가가 들어왔다. 문이 열렸을 때 눈이 내리는 것이 보였다. (9~12)

It came very fast and the sun went a dull yellow and then everything was gray and the sky was covered and clouds came on down the mountain and suddenly we were in it and it was snow. ... Some one came in and as the door opened I could see the snow falling. (40~43)

헤밍웨이는 눈을 순결과 행복의 이미지로 눈을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눈은 프레드릭 헨리가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바라보는 먼 산 위에 쌓여 있는 눈과 성격을 같이 한다.

얼마 후, 아랫거리에서 나는 사창가의 창으로부터 눈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교용 사창가였다. 그 사창가에서 친구와 두 개의 잔으로 아스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천천히 무겁게 떨어지는 눈을 보고 있으려니까 이것으로 이 해도 다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 위의 산은 아직 탈취하지 못했고, 강 저쪽 산도 하나도 점령하지 못하였다. 모두 내년으로 미룰 것들이었다. (10)

Later, below in the town, I watched the snow falling, looking out of window of the bawdy house, the house for officers, where I sat with a friend and two glasses drinking a bottle of Asti, and, looking out at the snow falling slowly and heavily, we knew it was all over for that year. Up the river the mountains had not been taken: none of mountains beyond the river had been taken. That was all left for next year. (41)

함박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공격이 다음 해로 미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함박눈으로 인해 전선에는 잠시 평화와 휴식이 온 것이다.

눈이 와서 공격이 없으니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휴가로 인해 사람들은 생기에 차게 된다. 또 눈이 어떤 이상향의 이미지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전쟁으로 인해 발생된 공포와 절망, 참혹함 등의 이미지를 해소해 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편 또 다른 긍정적 이미지의 상징인 산과 결합되어 사용될 때,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로 더욱 구체화 된다.

우리들은 산마루를 따라 뻗어 있는 거친 새로 낸 군용 도로를 따라 달렸다. 북쪽으로 두 개의 산맥이 저 멀리 바라다보였다. 눈이 남아 있는 봉우리 쪽은 어슴푸레 흐려 있었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는 햇빛을 받아 희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계속 산마루를 타고 올라감에 따라 또 다른 산맥이 그 너머로 보였다. 아까 그 산보다도 더 높은, 눈을 이고 있는 산들이었는데, 백묵처럼 희고 고랑진 것이 몇 개의 낮설은 평지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산들 훨씬 저 멀리로도 다른 산들이 겹겹이 보였으나 보일 듯 말 듯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하게 보였다. (49~50)

We went along the rough new military road that followed the crest of the ridge and I looked to the north at the two ranges of mountains, green and dark to the snow-line and then white and lovely in the sun. Then, as the road mounted along the ridge, I saw a third range of mountains, higher snow mountains, that looked chalky white and furrowed, with strange planes, and then there were mountains far off beyond all these that you could hardly tell if you really saw. (93)

프레드릭 헨리와 케서린 바클리가 웨이터로부터 위험을 전해 듣고 중립국인 스위스로의 탈출을 결심하고 호텔을 나와 보트를 타기 직전에 프레드릭 헨리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산지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차고 습기를 가득 담은 11월의 바람이었다.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

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280)

It was cold, wet November wind and I knew it was snowing in the mountains. (361)

막연히 산지에는 눈이 내릴 거라는 생각이지만, 어떤 평화와 안정, 포근함이 호수 건너 스위스 땅에는 있을 거라는 강한 이미지가 되며 야밤의 탈주가 성공할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라 할 수 있겠다. 비의 두려움을 눈이 하얗게 덮을 수 있는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올라가자니까 한동안 길이 반들반들하고 미끄러웠으나 재목을 나르는 길이 갈라지는 데까지는 말들이 언 눈을 짓밟아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 앞으로부터 깨끗한 눈으로 길이 숲 사이로 뻗어 있었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두 번이나 여우를 보았다. (315)

Going up the road toward home the road was smooth and slippery for a while and the ice orange from the horses until the wood-hauling track turned off. Then the road was clean-packed snow and led through the woods, and twice coming home in the evening , we saw foxes. (403)

스위스에서 지낸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추운 겨울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눈은 프레드릭 헨리와 케서린 바클리를 전쟁으로부터 격리 시켜주며 그들은 이 평온함과 정적 속에서 어떠한 외부의 침입도 거부한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평화로움에 묻혀 그해 겨울을 행복하게 보내게 되는데 그들의 행복한 시

간들과 눈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전쟁과 비극적인 사랑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전쟁이 낳은 부조리와 폭력의 세계를 보여주며 남녀 주인공의 사랑이 결실을 이룬 듯하나 ‘생리적인 덫’(biological trap)에 의해 파괴되는 허무와 염전사상이 담겨져 있다. 전쟁과 사랑을 다룬 이 작품 속에서 전쟁의 폭력성과 부조리를 배경으로 전개된 열렬한 로맨스가 주인공의 허무주의적 인생관과 대조를 이루다가 종말에 가서 낭만적 요소는 여지없이 파멸한 채 허무와 환멸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헤밍웨이는 전쟁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용기 있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주인공인 프레드릭 헨리와 케서린 바클리의 사랑은 죽음과 폭력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꽃이 피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전쟁의 실체와 허무를 인식하며 죽음을 극복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므로 아름다운 것이다.

『무기여 잘 있거라』는 헤밍웨이가 자신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⁴⁾ 할 만큼 두 주인공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쟁 이야기와 나란히 또 중심 테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낭만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둘의 첫 만남은 그의 절친한 친구인 외과의사 리날디 중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 프레드릭 헨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동료들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매음굴을 드나드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은 전쟁의 와중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남자들의 향락적인 유희를 위한 것이다.

케서린 바클리는 전쟁으로 인해 약혼자를 잃은 슬픔과 허무를 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정복하기 쉬운 상대이고, 전쟁터에서 매음굴에 가는 것 보다는 케서린 바클리를 만나는 것이 낫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녀를 만난다. 그녀와의 만남을 브리지 게임이나 카드게임 정도로 생각하고 돈을 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게임에 져도 손해

4) Carlos Baker ed. p. 49

볼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의 관계를 시작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그녀와 어떤 상태에 빠지건 상관없을 것만 같았다. 장교용 색시집에 가면 여자들이 귀찮게 매달렸다. 그리고 동료 장교들과 빈번히 2층을 오르내리면서 애정의 표시랍시고 군모를 거꾸로 씌워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이편이 훨씬 낫다. 내가 캐서린 바클리를 사랑하고 있지도 않고, 또 전혀 그럴 생각도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건 일종의 장난으로 카드놀이의 브리지와 같은 것이었다. 그저 카드놀이 할 때 말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 브리지와 마찬가지로 돈이나 그 외의 건 것을 위해서 노름을 하는 척하면 된다. 지금껏 걸은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래도 좋았다. (34~35)

I did not care what I was getting into. This was better than going every evening to the house for officers where the girls climbed all over you and put your cap on backward as a sign of affection between their trips upstairs with brother officers. I knew I did not love Catherine Barkley nor had any idea of loving her. This was a game, like bridge, in which you said things instead of playing cards. Like bridge you had to pretend you were playing for money or playing for some stakes. Nobody had mentioned what the stakes were. It was all right with me. (74~75)

이 처럼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생리적인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한 기계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주인공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진지해지고 순수한 것으로 변화되어간다. 프레드릭 헨리가 캐서린 바클리를 세 번째 만나러 가서 그녀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 왔을 때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문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나는 쓸쓸하고 허전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나는 캐서린을 만나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한 것이었다. 얼마쯤 취해가지고 캐서린을 만나러 간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못 만나고 보니 쓸쓸하고 적막한 기분에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46)

I went out the door and suddenly I felt lonely and empty. I had treated seeing Catherine very lightly, I had gotten somewhat drunk and had nearly forgotten to come but when I could not see her there I was feeling lonely and hollow. (89)

가벼운 브리지 게임 정도로 시작한 사랑이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밀란(Milan)에 있는 미군병원에 이송된 후 머무는 동안 캐서린 바클리를 다시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삶과 죽음 사이를 방황한 후 삶의 허무를 체험하고 공허함에 빠져있던 프레드릭 헨리는 그녀와의 재회와 이별을 반복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에 눈뜨게 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

캐서린 바클리였다.

그녀는 방안으로 들어오자 침대 있는 데로 가까이 다가왔다.

“오랜간만이에요.” 그녀는 인사를 했다. 싱싱하고 젊고 아름다웠다. 이

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처음 보는 것만 같았다.

“그렇군.” 나도 대답을 했다. 단번에 나는 사랑의 불길에 타올랐다. 가슴속의 모든 것이 뒤집혀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문 쪽을 보고 나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침대 가에 걸터앉아 몸을 굽혀 키스를 했다. 나는 그녀를 와락 끌어당겨 키스를 했다. 그녀의 뛰는 가슴이 내게 느껴졌다.
(100)

It was Catherine Barkley. She came in the room and over the bed.

“Hello, darling,” she said. She looked fresh and young and very beautiful. I thought I had never seen any one so beautiful.

“Hello,” I said. When I saw her I was in love with her. Everything turned over inside of me. She looked toward the door, saw there was no one, then she sat on the side of bed and leaned over and kissed me. I pulled her down and felt her heart beating. (150~151)

다시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녀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느껴지는 텅 빈 허탈과 무거운 무력감은 앞으로 프레드릭 헨리에게 닥쳐올 운명적 순간을 예고하는 듯하다.

그녀는 나갔다. 내가 그녀와 사랑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나는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밀라노 병원의 한 병실에 누워 있다니,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기분은 꽤 유쾌했다. 미스 게이지가 들어왔다.
(101)

She went out. God knows I had not wanted to fall in love with her. I had not wanted to fall in love with any one. But God knows I had and I lay on the bed in the room of the hospital in Milan and all sorts of things went through my head but I felt wonderful and finally Miss Gage came in. (125)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비의도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터라는 극단적인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어우러져 급진전되고 또한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의 완성된 순간에 이르게 된다.

가끔 여자나 남자나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그러한 기분을 질투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조금도 그러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고독하다는 기분, 즉 남들에게서 떨어져 고독하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나도 그와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다. 많은 여자들 틈에 끼어 있을 때 나는 가장 고독하다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262)

Often a man wishes to be alone and a girl wishes to be alone too and if they love each other they are jealous of that in each other, but I can truly say we never felt that. We could feel alone when we were together, alone against the others. It has only happened to me like that once. I have been alone while I was with many girls and that is the way that you can be most lonely. But we were never lonely and

never afraid when we were together. (340)

이 두 사람의 사랑을 통해 작가는 사랑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행복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왜 프레드릭 헨리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에 빠져야만 하는 것인가? 자신이 케서린 바클리와의 사랑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사랑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인간이 사랑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정신적 행복의 가치척도로 생각하게끔 운명 지어졌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덧인 것이다.

헌신적이고 복종적인 케서린 바클리는 전쟁을 통해 약혼자를 잃고 인간의 허무를 체험한 여자였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보다는 프레드릭 헨리를 더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이다. 임신한 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처지보다는 짐이 되지 않으려는 그를 향한 헌신적 사랑으로 작품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그녀는 프레드릭 헨리에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여성이지만 피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된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가 본데?”

그러자 그녀는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를 매춘부라고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창가로 가서 커튼을 한쪽으로 밀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당신은 매춘부가 아니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소리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거칠었다. (161~162)

“What’s the matter, darling?”

“I never felt like a whore before,” she said. I went over to the window and pulled the curtain aside and looked out. I had not thought it would be like this.

“You’re not a whore.”

“I know it, darling. But it isn’t nice to feel like one.” Her voice was dry and flat. (223~224)

프레드릭 헨리가 부상이 회복되어 부대로 복귀하기 전에 그들은 잠시 여관에 들어가면서 케서린 바클리는 자신이 매춘부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한다. 사랑에 대한 프레드릭 헨리의 회의적인 태도가 그녀에게 전이되어 진정한 사랑과 매춘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꿈꾸며 확신에 찬 출발을 하게 되지만 후에 일어나는 제반 사건들로 미루어 그들의 사랑이 깊어갈 수록 회의감이 점점 위협적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운명을 비극으로 몰아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이었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의 한 예는 바로 출산문제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

“화가 나셨나요?”

“아니.”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조금은. 그러나 당신 때문은 아냐.”

“누가 나 때문이래요? 바보 같은 소리 마세요. 다만 그냥 함정에 빠졌다는 것뿐이에요.” (147)

“You aren’t angry are you, darling?”

“No.”

“And you don’t feel trapped?”

“Maybe a little. But not by you.”

“I didn’t mean by me. You mustn’t be stupid. I meant trapped at all.”

“You always feel trapped biologically.” (207)

그들이 전쟁의 현장으로부터 결별해 이루려고 했던 소세계의 행복이란 쉽사리 성취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주인공 프레드릭 헨리로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덧에 걸린 인생의 제반여건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성숙하게 만들려는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다. 케서린 바클리의 임신 이야기를 듣고 프레드릭 헨리는 다만 ‘생물학적 덧’에 걸린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생물학적 덧은 자연이 설치한 덧이며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인 것이다.⁵⁾

케서린 바클리의 헌신적인 사랑에 힘입어 프레드릭 헨리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변하고 있다. 그가 퇴각 중 비몽사몽간에 케서린 바클리의 꿈을 꾸는 장면은 남편과 같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주는 최초의 장면이다. 육체적인 애정표현에서 정신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변화되며 다음과 같이 그의 잠꼬대에서 확연히 들어난다.

불어라, 불어라, 너 서풍아. 옹지, 바람이 분다. 그리고 비가 내린다. 이 슬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다. 밤새도록 내렸다. 바람이 비를 몰아다가 내려 주었다. 저것을 보라. 제기랄, 케서린이 내 팔에 안겨 있고 내가 다시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리운 케서린. 내 사랑 케서린을 비처럼 내리게 하소서. 바람아, 다시 한 번 그녀를 나에게 데려다 주렴. 그렇지, 우리들

5) Ray B. West, JR, Carlos Baker ed. p. 32

은 비바람 속에 있다. 모두 비바람 속에 있다. 이슬비로는 바람을 잠재울 수 없으리라. 캐서린 잘 자! 나는 소리를 내어 말했다. 잘 자기를 바라오. 잠자리가 불편하면 돌아누워요. 냉수를 가져다주지. 조금 있으면 아침이 될 거야. 아침이 되면 나이질 거요. 미안하구려, 것처럼 당신을 불편하게 해서, 좀 더 자려고 해 봐요, 응 캐서린. (209)

Blow, blow, you western wind. Well, it blew and it wasn't the small rain but the big rain down that rained. It rained all night. You knew it rained down that rain. Look at it. Christ, that my love were in my arms and I in my bed again. That my love Catherine. That my sweet love Catherine down might rain. Blow her again to me. Well, we were in it. Every one was caught in it and the small rain would not quiet it. "Good-night, Catherine," I said out loud. "I hope you sleep well. If it's too uncomfortable, darling, lie on the other side," I said. "I'll get you some cold water. In a little while it will be morning and then it won't be so bad. I'm sorry he makes you so uncomfortable. Try and go to sleep, sweet." (278)

프레드릭 헨리의 잠꼬대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욕구로부터 출발한 그의 사랑이 이제는 거짓 사랑이 아니며, 뱃속의 아기로 인해 불편해서 잠 못 이루는 캐서린 바클리를 불쌍해하며, 잠자리까지 걱정해 준다면 이 사랑의 변화에 위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성숙한 사랑은 비극 작품에 있어서 주인공이 겪을 혹독한 고통을 전제하고 있으며 비가 또한 간간이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프레드릭 헨리는 테크리아멘토(Tagliamento) 강으로 투신하고 나서 거의 처량한 도피자로서 그녀가 있는 밀라노로 가는 플랫폼을 탄다. 이 기차 안에서 그는 무

를도 아프고 배고 고프고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캐서린 바클리를 생각한다.

머리는 내 것이었지만 아무 쓸모가 없었다.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기억하기 위한 것, 그러나 그것도 많이 기억하기 위한 것은 못 되었다. 생각해 낼 수 있다면 캐서린에 관한 것뿐이었는데 만날지 어쩔지도 모르는 그녀에 관해서 생각한다면 나는 그만 미쳐 버릴 것 같아 캐서린 생각은 끊기로 했다. 그저 조금만, 천천히 덜컥대며 가는 기차며 포장 사이로 새어드는 광선이며, 차 바닥에 캐서린과 누워 있는 자신을 생각하는 김에 조금만 그녀를 생각하기로 했다. (246)

The head was mine, but not to use, not to think with, only to remember and not too much remember.

I could remember Catherine but I knew I would get crazy if I thought about her when I was not sure yet I would see her, so I would not think about her, only about her a little, only about her with the car going slowly and clickingly, and some light through the canvas and my lying with Catherine on the floor of the car. (318)

캐서린 바클리가 마치 위기에 처해 있는 프레드릭 헨리를 지탱해 주듯이 말이다.

체포와 처형의 위협 속에서 프레드릭 헨리와 캐서린 바클리는 스위스로 도피하고자 강을 건너게 되고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로의 탈출에 성공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누리는 짧은 목가적인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에 의한 인위적 살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도피하였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이미 설정해 놓은 죽음이었다.

내게는 우산대박에 보이지 않았다. 우산은 팽팽히 당겨져서 마치 우산을 타고 나가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을 준 채 허리를 젖히고 있을 때 갑자기 우산이 비틀어졌다. 우산살이 하나 이마에 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바람 때문에 구부러지려고 하는 우산 꼭대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우산 전체가 뒤틀리며 파닥 뒤집혀졌다. (285)

All I could see was umbrella ribs. The umbrella strained and pulled and I felt us driving along with it. I braced my feet and held back on it, then suddenly, it buckled; I felt a rib snap on my forehead, I tried to grab the top that was bending with the wind and the whole thing buckled and went inside out and I was astride the handle of an inside-out, ripped umbrella, where I had been holding a wind-filled pulling sail. (367~368)

둘은 도피하는 도중 바람의 힘을 이용해 보려고 우산을 펼친다. 한동안 잘 달리지만 바람을 팽팽하게 받아 마치 임신부의 배처럼 불룩하던 우산이 뒤집힌다. 케서린 바클리의 비극이 이미 예고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예고된 그들의 비극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도 본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해산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던 만큼 우리들은 조금한 느낌이 들어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헛되지 보낼 수는 없었다. (323)

We knew the baby was very close now and it gave us both a feeling as though something were hurrying us and we could not lose

any time together. (412)

아기를 낳으려는 케서린 바클리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쇠약해진 육체는 이것을 담당해 낼 수 없게 된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인 아기는 탯줄이 목에 감겨 사산 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프레드릭 헨리는 케서린 바클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그저 그는 사산된 아기를 보며 생의 비애를 느낄 뿐이다.

아이는 전혀 숨을 쉬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도 생존해 있질 않았던 것이다. 오직 케서린의 뱃속에서만 꿈틀거렸던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배를 찌는 것을 나는 가끔 손으로 만져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은 그것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쪽 질식해 있었는지도 모른다. 불쌍한 내 아기. 내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돼 있었더라면 이런 죽는다 산다하는 소동은 없었을 것 아닌가. (341)

He hadn't. He had never been alive. Except in Catherine. I'd felt him kick there often enough. But I hadn't for a week. Maybe he was choked all the time. Poor little kid. I wished the hell I'd been choked like that. No I didn't. Still there would not be all this dying to go through. (430~431)

이에 대해 이 찬은 “케서린의 죽음은 단지 태아의 목에 탯줄이 감겼다는 생물학적인 사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히 않으며 산부인과 의사의 무능 탓으로만 돌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녀의 죽음은 ‘생물학적 뒤통수’ 때문이다.”⁶⁾라고 말한다.

6) 이 찬, 「헤밍웨이의 작품에 나타난 허무와 극기」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 26

이처럼 프레드릭 헨리는 그저 케서린 바클리의 상태를 심히 염려한 뿐이다. 그리고 죽음을 야구게임의 주자에 비유한다. 야구경기를 하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나가야 하는 야구선수처럼 세상은 인간에게 아웃의 규칙만 가르쳐 줄 뿐인 허탈한 죽음이며 억울한 죽음이다. 인간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터득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 쉽게 패배해버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덧일 뿐이다.

이번에는 케서린이 죽을 차례다. 인간이란 모두 죽는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알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갑자기 세상에 떨어져 사는 방식을 배우고 그러다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모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죽고 마는 것이다. 아니면 리날디처럼 매독이 옮겨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고 마는 것이다. (341)

Now Catherine would die. That was what you did. You died. You did not know what it was about. You never had time to learn. They threw you in and told you the rules and the first time they caught you off base they killed you. Or they killed you gratuitously like Aymo. Or gave you the syphilis like Rinaldi. But they killed you in the end. You could count on that. Stay around and they would kill you. (431)

비극의 속성인 궁극적인 절망이나 철저한 파멸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간의 한계, 또는 운명에 따라야 하는 인간의 나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프레드릭 헨리의 독백에서 인간의 한계와 운명은 여실히 나타난다.

또한 제왕절개의 실패로 케서린 바클리마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는데 그녀에 대한

프레드릭 헨리의 사랑은 절정에 오른다.

몸 속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갔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녀가 죽어 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하나님, 제발 그녀를 죽지 않도록 해 주소서. 죽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제발 인자하신 하나님, 그녀를 죽지 않게 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녀를 죽지 않게 해 주소서. 부디부디 죽지 않게 해 주소서. 하나님, 제발 그녀를 죽지 않게 해 주소서. 그녀를 죽지 않게 해 주신다면 당신이 시키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아기는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은 데려가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 것은 하느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은 안 됩니다. 제발, 제발, 하나님. (344)

Everything was gone inside of me. I did not think. I could not think. I knew she was going to die and I prayed that she would not. Don't let her die. Oh, God, please don't let her die. I'll do anything for you if you won't let her die. please, please. please, dear God, don't let her die. Dear God don't let her die. I'll do anything you say if you don't let her die. You took the baby but don't let her die. That was all right but don't let her die. Please, please, dear God, don't let her die. (434)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에게 의지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모습은 간절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신실한 종교인이 모습은 아니었고 그에게 신의 존재는 극히 희박할 뿐이었다.⁷⁾ 프레드릭 헨리의 이러한 기도는 신

7) 김병철, 『헤밍웨이 문학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8, p. 222-23

과 인간사이의 어떤 필요한 상호적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케서린 바클리를 구해줄 메시아는 없으며 그래서 그의 기도는 무의미하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는 절망적이고 파멸적인 허무를 지니게 한다.

케서린 바클리의 죽음에 직면하여 그는 그녀의 죽음이 그들의 일시적으로 향유했던 행복의 대가가 아니었는지 자문한다.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 결과로 잉태한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케서린 바클리가 희생되었기 때문이다.

가엾은, 가엾은 나의 캐트! 이것이 같이 잔 죄의 대가였다. 이것이 서로의 긴 사랑에서 얻은 함정의 결말이었다. 그래도 마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인가.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들 했을까? 이건 일단 시작되면 쉴 줄을 모른다. 케서린은 임신 중에는 정말 건강했다. 임신의 고통도 없었다. 거의 입덧도 없었다. 마지막까지 씹싹했다. 이제 그녀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왔다. 무슨 짓을 해도 달아날 길이라곤 없다. 달아나? 천만에! 오십 번을 결혼해 봐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죽으면 어찌 되나? 안 죽을 거야. 요새 어린 아이를 낳다 죽는 사람은 없다. 이건 모든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33)

Poor, poor dear Cat. And this was the price you paid for sleeping together. This was the end of the trap. This was what people got for loving each other. Thank God for gas, anyway. What must it have been like before there were anaesthetics? Once it started, they were in the mill-race. Catherine had a good time in the time of pregnancy. It wasn't bad. She was hardly very sick. She was not awfully uncomfortable until toward the last. So now they got her in the end. You never got away with anything. Get away hell! It would have

been the same if we had been married fifty times. And what if she should die? She won't die. People don't die in childbirth nowadays. That was what all husbands thought. (422)

그러나 그의 이러한 의심은 의미 없는 것일 뿐이다. 프레드릭 헨리는 캐서린 바클리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숙명과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성찰하고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애인의 죽음 앞에 당황하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프레드릭 헨리에 반해 캐서린 바클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생의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녀는 헌신적이면서도 신앙에 가까운 사랑으로 그를 인간성 상실에서 오는 허무를 구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숭고한 사랑의 경지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녀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극기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는 죽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말했다.

“죽는 건 싫어요.”

...

“당신만으로 충분해요.”

조금 있다가 다시 말했다.

“무섭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 곁을 떠난다는 것이 싫어요.”

...

캐서린은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있겠어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입을 여는 것도 괴로운 듯했다.

“제발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하고 의사가 말했다.

“애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캐서린은 윙크를 던졌다. 얼굴이 잿빛이었다.

“바로 이 밖에 있겠소.”

나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여보.”

하고 캐서린이 말하였다.

“난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난 시험에 빠진 것뿐이에요.” (344~346)

“I’m going to die,” she said; then waited and said, “I hate it.”

...

“Just you,” she said. then a little later, “I’m not afraid. I just hate it.”

...

Catherine said. “I’ll come and stay with you nights,” she said. It was very hard for her to talk.

“Please go out of the room,” the doctor said. “You cannot talk.”

Catherine winked at me, her face gray. “I’ll be right outside,” I said.

“Don’t worry, darling,” Catherine said. “I’m not a bit afraid. It’s just a dirty trick.” (434~435)

죽음을 지켜볼 신부도 필요 없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프레드릭 헨리의 존재와 사랑이었다. 그녀는 죽음을 ‘비열한 함정’ 이라고 증오함으로써 그것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용감한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보이고, 죽기 전에 프레드릭 헨리와의

완전한 사랑을 성취함으로써 진정한 생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과도한 출혈로 인해 그녀가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프레드릭 헨리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수용하고 인간존재의 허무를 깨닫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출혈이 계속되었던 모양이다.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캐서린이 숨을 거둘 때까지 옆에 있었다. 그녀는 쪽 의식을 잃었다. 숨을 거둘 때까지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346)

It seems she had one hemorrhage after another. They couldn't stop it. I went into the room and stayed with Catherine until she died. She was unconscious all the time, and it did not take her very long to die. (436)

캐서린 바클리의 허무한 죽음으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이 좌절에 좌절을 맛보게 된다. 전쟁에 절망한 프레드릭 헨리는 사랑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V. 결론

『무기여 잘 있거라』는 참혹한 1차 세계대전을 그 시대적 배경으로 작가인 헤밍웨이가 전쟁의 피비린내는 참상을 직접 체험하고 나서 그 실상을 바탕으로 쓴 자서전적인 요소가 짙게 드리운 작품이다. 제1부에서는 음산한 전선에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제2부에서는 두 남녀 주인공의 감격적인 만남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프리드릭이 전선으로 복귀하였지만 전쟁은 참패로 끝나자 부대가 총 퇴각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다루었으며, 제4부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있던 지옥의 문에서 탈출하여 프리드릭과 케서린이 함께 전쟁 당시의 중립국인 스위스로 희망을 갖고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제5부에서는 둘만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케서린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이렇게 작품의 전체는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가는 등장인물의 내면에 깔려 있는 심리적 갈등을 통해 전쟁의 무의미함과 참혹성, 인간성 말살, 허무한 전쟁, 심리적 혼동, 비정한 사랑 등을 주인공인 프레드릭 헨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현상의 묘사는 비극적 효과를 더해준다. 그 중에서 확연히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상징물은 비와 눈이다. 비는 작가인 헤밍웨이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로서 작품의 전반적으로 암울하고 답답하며 고난과 불길한 예감을 암시하는 역할로 작용하고 있는데, 비는 작품이 시작되면서부터 케서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내리고 있다. 또한 비의 강도는 이별 아니면 죽음 등의 참혹함을 예감하게 한다. 프리드릭과 케서린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사랑이 긴장, 초조, 번민, 희열, 애환 등 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면서 숨가쁜 극적 효과를 자아낸다. 주로 1, 3, 5부에서는 전쟁과 그 상황 속에서의 암울함과 절망을 표현하였고, 비는 주로 밤에 거세게 내린다.

하지만 비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암울함 속에서도 눈의 평화로운 이미지가 비 사

이를 뚫고 포근하고 감미로운 미감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평화와 행복의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눈은 사랑과 건전함, 평화스러움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2부에서는 눈은 폐허가 된 지면을 덮어주고, 대포 위에 쌓이는 눈은 모든 불결함을 씻어주는 상징적 의미를 자아낸다. 프리드릭이 처참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속에서 바라보는 먼 산 위에 쌓여 있는 눈과 그 성격 역시 유사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또한 작품 속에 등장한 산의 묘사는 미지의 이상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부에서는 두 남녀가 스위스로의 탈출을 결심하고 호텔을 나와 보트를 타기 직전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산악지대에는 눈이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프리드릭이 스위스에서 사랑하는 그녀와 행복한 삶과 포근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섞인 표현이자 평화와 안정을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통해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눈은 비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

이처럼 눈은 모든 전쟁의 참혹한 상흔을 덮어 치유하고, 심지어 등장인물들의 불안 요소까지를 정화시키는 복합적인 기능, 즉 상징적인 의미를 질게 풍기고 있다.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이상향과 평화를 향하는 간절한 소망을 암시하고 있다. 작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눈의 이미지는 비의 상징성과는 달리 극도로 불안에 빠져있는 등장인물들에게 어느 정도 진정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날씨와 자연물의 상징은 아주 중요한 주제적 의미를 가일층 높여주는 부수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비는 불행이나 재난의 예감을 암시하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눈의 이미지는 비극적 상황을 해소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의도가 서려있다.

헤밍웨이는 주인공인 프리드릭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전쟁의 죽음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이 도피하려고 해도 결국엔 죽음의 멍에에 걸려 자연과 신 그 자체가 설정한 숙명적인 죽음과 폭력 앞에 절망과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적인 패배주의자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프리드릭이 아무 의

미 없는 호기심에 참여한 전쟁에서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과 폭력에 눈을 뜨고, 인간은 이기심과 허무로 가득 차있음을 깨닫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삶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인생의 비극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도 곳곳하게 이를 극복하려는 강인한 의지가 확고할 때 인간의 숭고한 정신은 결코 파멸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품고 있다고 본다.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가 “잃어버린 세대”의 문학 특징인 죽음을 기반으로 한 비극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의 비극 정신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내적승리, 정신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허무한 그리고 절망적인 죽음만을 표현한 작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사랑과 용기, 인내와 실존주의적 극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항하는 도덕적 행동규범으로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상을 모색하고 있다.

헤밍웨이는 주인공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을 회복해야 됨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실존주의적 작가이다. 그는 독자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경험케 하여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중후한 작가이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극단적인 허무주의적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좌절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중심을 잡고 방황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고 좌절과 절망을 희망과 꿈으로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살아있을 때 비가 눈이 되듯이 우리의 삶은 언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젊은 세대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공명수. 『미국소설의 안과 밖』. 동인, 1999.
- 구남선.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상징성. 경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2002.
- 김남희. 『무기여 잘 있거라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병철. 『헤밍웨이 문학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8.
- , 『무기여 잘 있거라 및 노인과 바다』. 신아사, 1986.
- 김유조. 『어네스트 헤밍웨이』
- 김형수. 「Ernest Hemingway의 작품 속에 나타난 Nihilism 고찰: 초기 작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1994.
- 김희진. 『20세기 영미문학의 이해』. 신아사, 2000.
- 박문자. 「헤밍웨이의 작품 속에 나타난 죽음 의식」.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4.
- 박성수. 「Ernest Hemingway의 상징주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심정규, 「Ernest Hemingway의 A Farewell to Arms에 나타난 Nihilism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1992.
- 오선주,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7.
- 우종균, 『무기여 잘 있거라』와 『노인과 바다』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 대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영문학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승재, 『무기여 잘 있거라』. 홍신문화사, 2008.
- 이용학. 「헤밍웨이 문체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이 찬, 「헤밍웨이의 작품에 나타난 허무와 극기」.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차광석,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와 『무기여 잘있거라』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5.]

최윤영. 『무기여 잘 있거라』. 해원출판사, 2004.

Baker, Carlos H. *Hemingway : The Writer as Artist*. New York: Scribner's, 1995.

Benson. Jackson J. *Hemingway : The Writer's Art of Self-Defense*.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69.

Cowley, Malcolm. *Hemingway : Twentieth Century View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1962.

E. M. Halliday. "Hemingway's Ambiguity : Symbolism and Irony," Carlos Baker ed. *Ernest Hemingway :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1979.

Hall, Vernon. *A Short History of Literary Criticism*.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1963

Hemingway, Ernest. *A Farewell to Arms*. New York : Scribner's, 1995.

Hotchner, A. E. *Hemingway and His World*. New York : Vendome Press, 1989.

Killinger, John. *Hemingway and the Dead God*. Lexington :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1960.

Lee, Robert. *Ernest Hemingway: New Critical Essays*. U.S.A.: Vison and Barnes and Noble, 1983.

Light, James F. "The Religion of Death in A Farewell to Arms." *Ernest Hemingway : Critiques of Four Major Novels*, ed. Carlos Baker. New York : Charless Scribner's Sons, 1962.

- Oldsey, Bern. "The Snows of Ernest Hemingway", *Ernest Hemingway : A Collection of Criticism*, e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1973
- Weed, Robert P. *Hemingway :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New Jersey : Prentice-Hall, 1962.
- Wirt William, *The Tragic Art of Ernest Hemingway*. Louisiana University Press, 1983.
- Young, Philp. *Ernest Hemingway : A Reconsideration*. Pennsylvania : The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197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88049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오 기 봉 한문 : 吳 基 峰 영문 : Oh ki-bo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금호1차 102동 1403호				
연락처	E-MAIL : sundae1982@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무기여 잘 있거라』에 나타난 허무주의와 비극성 연구 영어 : Nihilism and Tragedy in A Farewell to Arm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O) 반대()

2010년 12 월 10 일

저작자: 오기봉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